

읽는 교사를 넘어
사유하고 실천하는 교사로

경북 교원 인문 인사이트 라운드 테이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읽는 교사를 넘어
사유하고 실천하는 교사로

경북 교원
인문 인사이트
라운드 테이블

주제강연 1

AI는 답을 주는데 사람들은 왜 여전히 지식을 찾아가?

<위대한 수업>으로 본
'지식의 효용'과 '이용자'의 발견

- 김민태 PD



AI는 답을 주는데 사람들은 왜 여전히 지식을 찾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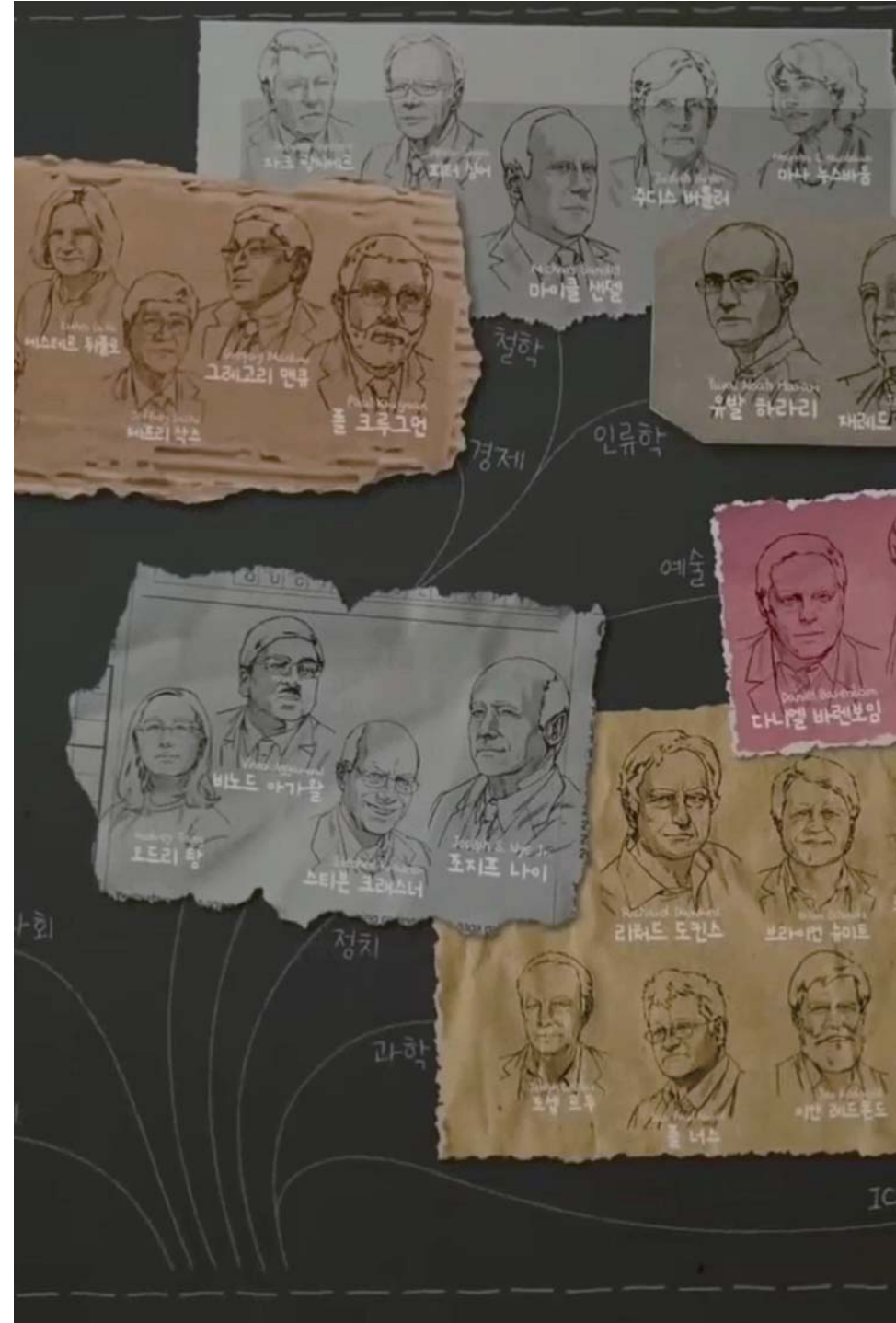
<위대한 수업>으로 본 '지식의 효용'과 '이용자'의 발견

1> 사람들은 왜 지식을 찾는가?

의심 받았지만 다시 증명된 '지식의 효용'

2> 요즘 누가 긴 강의를 보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던 '이용자'의 세계



프로필

기획 다큐멘터리 <아이의 사생활> 등 연출 (2002~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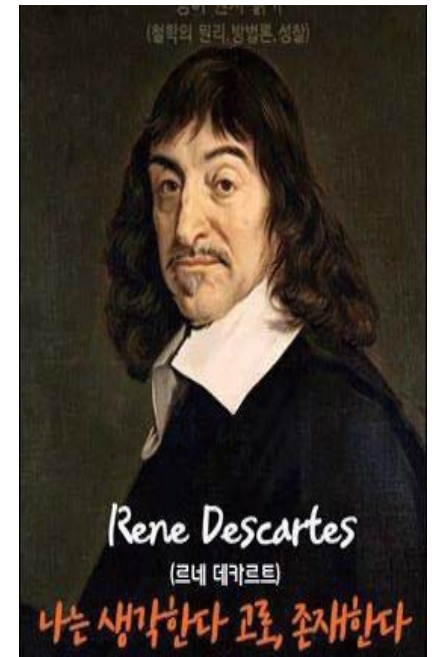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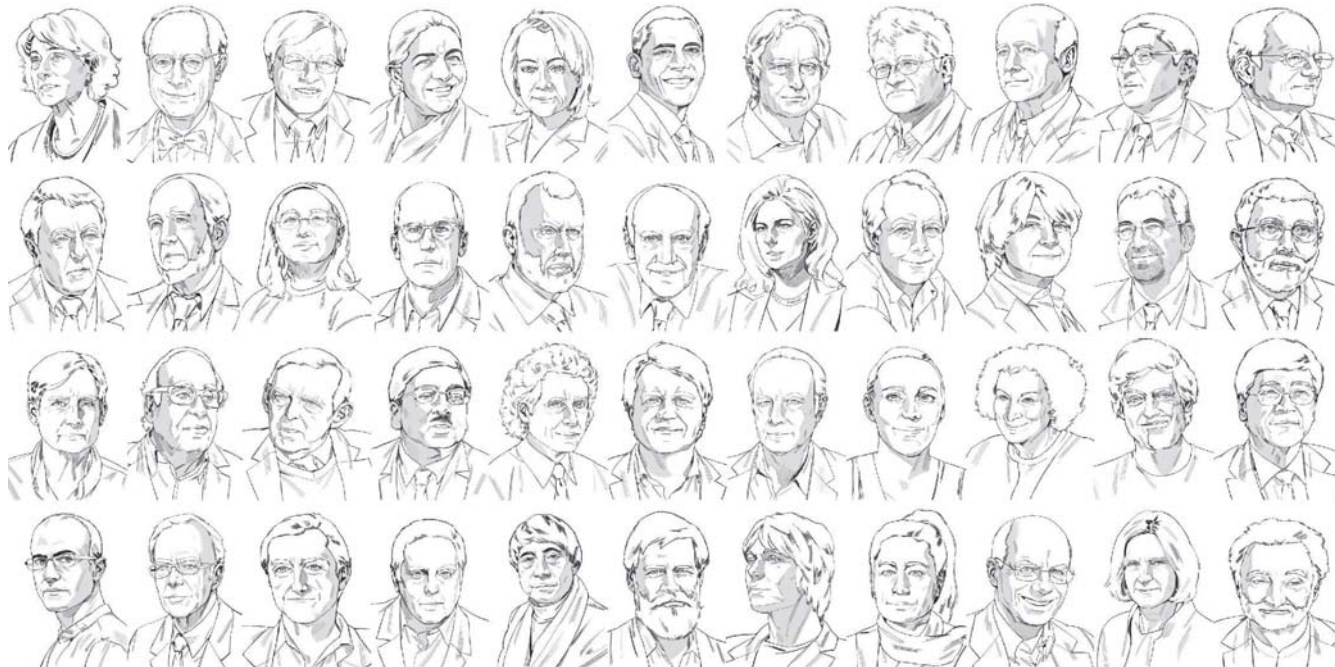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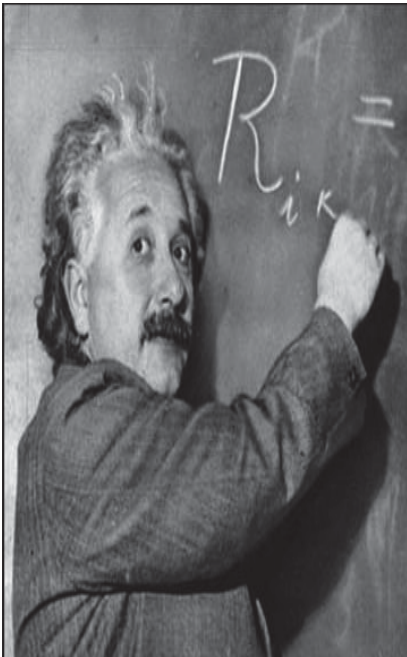
인터넷 서비스 <육아학교> 기획 (2015~2019)

세계 석학 강연 <위대한 수업> 프로젝트 책임 (2020~2026)



위대한 수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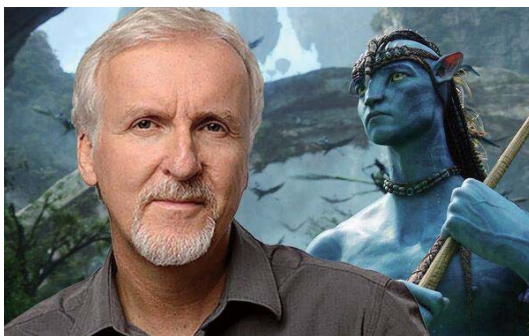
- [방송] 전 세계 최고 지성의 강의 시리즈 (EBS + K-MOOC)
- [글로벌서비스] K-지식을 목표로 자체 투자한 글로벌 교육진출 프로젝트
- [비전] 전 세계 지성의 통찰을 누구나 자유롭게 듣고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한다



2021~2025 150명 섭외·제작



리처드 도킨스
진화생물학자



제임스 카메론
영화감독



안도 다다오
건축가

- 노벨상 수상자 15명, 글로벌 리더·CEO 15명, 문화예술 거장 14명, 세계 석학 10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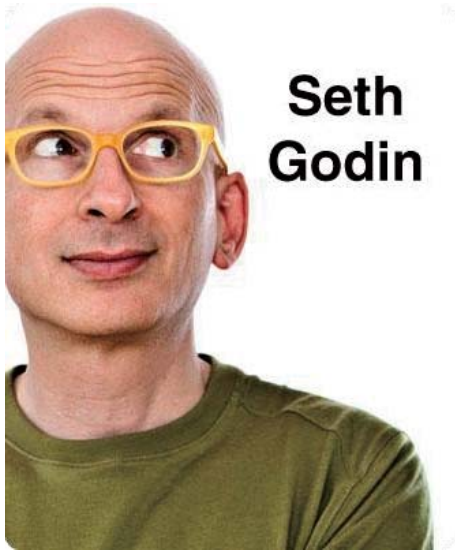
“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프로그램”

“미친 섭외력”

“수신료의 가치”

“방송의 진정한 역할”

“한국의 납세자들이 존경스럽다” (아담 쉐보르스키)



Seth
Godin



“보라빛 소(Purple Cow)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만드는
상품은 리마커블(remarkable)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고 있고, 예외적이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것이어야 합니다.”

150+

세계 최고 지성 섭외 (2025년 기준)

ProQuest

세계 최대 학술 플랫폼 계약 체결

한국 교양 사상 최고의 찬사

미친 섭외력, 방송의 진정한 역할



AI는 답을 주는데 사람들은 왜 여전히 지식을 찾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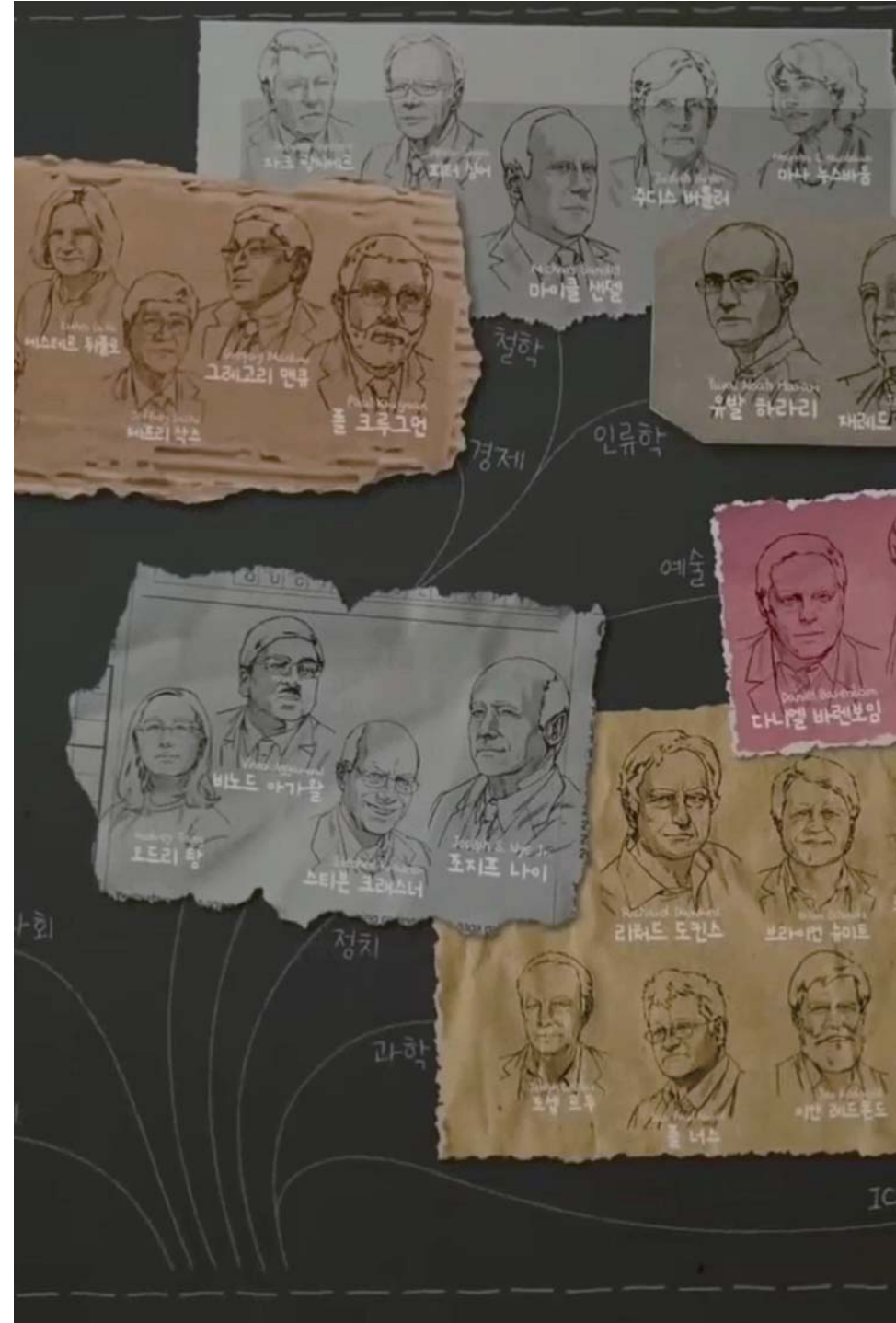
<위대한 수업>으로 본 지식의 효용과 이용자의 발견

1> 사람들은 왜 지식을 찾는가?

의심 받았지만 다시 증명된 '지식의 효용'

2> 요즘 누가 긴 강의를 보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던 '이용자'의 세계



강의 요약

1

누가 보는가?

2

왜 보는가?

AI에게 요청

강의를
한 장으로 표현해주세요

위대한 수업: 지식의 본질

**누가: 딥다이브(Deep-dive)형
이용자**



지적 충족감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 추구

왜: 정답이 아닌 '해석의 힘'



스스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
더 나은 나를 위한 사유와 통찰

위대한 수업: 지식의 본질과 타깃

누가, 왜 보는지를 알아야 지식의 가치가 완성된다.

1. 누가 보는가 (WHO WAT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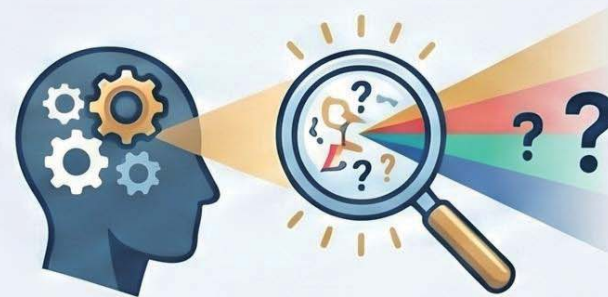
핵심 타깃: ‘딥다이브(Deep-dive)’형



- 시시한 요약보다 어렵더라도 깊이 있는 통찰과 지적 충족감을 원하는 이용자.

2. 왜 보는가 (WHY WATCH?)

AI 시대, 지식은 ‘해석의 힘’



- 단순 정보 습득을 넘어, 정답 없는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관점을 갖기 위해 시청.
-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사유: 석학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인간의 시스템과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함.

[위대한 수업] AI 시대, 우리가 여전히 '지식'에 갈증을 느끼는 이유

본 인포그래픽은 EBS <위대한 수업>의 기획 방향성을 요약합니다. 시청자를 '스낵형'과 '딥다이브형'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의 타겟을 명확히 하고, 정답보다 '해석'이 중요한 AI 시대에 세계적 석학들의 지식이 왜 여전히 유효한 '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설명합니다.

누가 보는가? (시청자 타겟 분석)



스낵형 이용자

빠른 자극을 원하는 스낵형과 달리, 지적 충족감을 원하는 '딥다이브형'에 집중합니다.



딥다이브형 이용자

<위대한 수업>의 포지셔닝: 관심 분야의 깊이 있는 탐구
잡학다식이나 단순 여가 활용을 넘어, 실질적 인사이트를 원하는 이용자를 공략합니다.

“어렵다”와 “시시하다” 사이의 선택

대중성을 위해 가벼워지기보다, 책과 차별화된 깊이 있는 도식화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청자가 지식 콘텐츠를 이용하는 4가지 주요 목적과 선호 스타일 정리

잡학 다식형



다양한 분야의 많은 지식

▶ 선호 콘텐츠 스타일:
요약 및 정리된 짧은 영상

순수 지식 추구형



지적 호기심 충족

▶ 선호 콘텐츠 스타일:
전집 분야와 깊이 있는 내용

업무 활용형



실무 및 전문성 강화

▶ 선호 콘텐츠 스타일:
실질적 인사이트가 담긴 토크

여가 활용형



가벼운 시간 보내기

▶ 선호 콘텐츠 스타일:
가볍게 시청 가능한 스낵형

왜 보는가? (지식의 존재 이유)

AI 시대, 지식은 '해석의 힘'이다

단순히 정답을 아는 것을 넘어, 현상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동일한 질문, 서로 다른 통찰의 층들



국가의 번영을 '지리'로 보는
재레드 다이아몬드



국가의 번영을 '제도'로 보는
대런 애쓰모글루

“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도구”

지식은 정답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더 고양시키기 위해 여전히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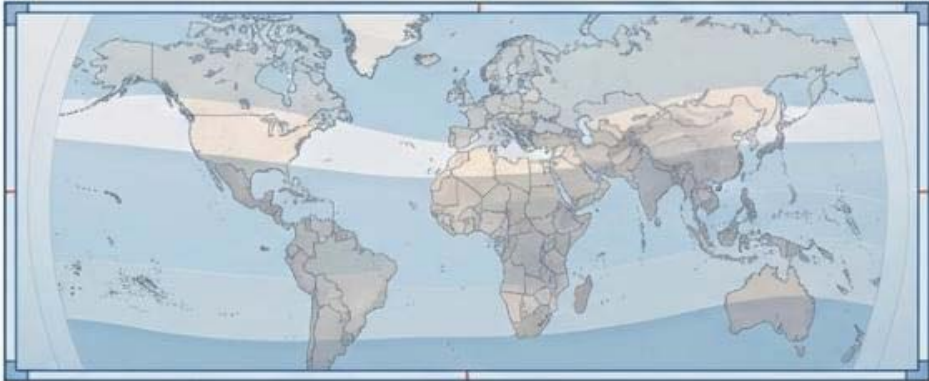
왜 보는가?

AI시대 지식이 중요한가?



#1.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재레드 다이아몬드



Focus	지리 (Geography)
Driver	환경과 운명 (Environment & Destiny)

지리적 조건이 문명의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느냐가 운명을 바꾼다.

대런 애쓰모글루



Focus	제도 (Institutions)
Driver	인간의 시스템 (Human Systems)

제도가 번영을 만든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대런 애쓰모글루

"국가의 번영은 제도로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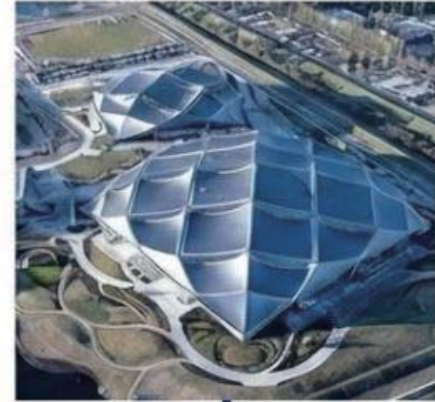
#2.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르 코르뷔지에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안도 다다오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토마스 헤더윅
인간적인 건축.

#2.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안토니 가우디
1852-1926



르 코르뷔지에
1887-1965



안도 다다오
1941-



토마스 헤더윅
1970-

정리

지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정답을 아는 것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같은 질문에도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간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AI는 답을 주는데 사람들은 왜 여전히 지식을 찾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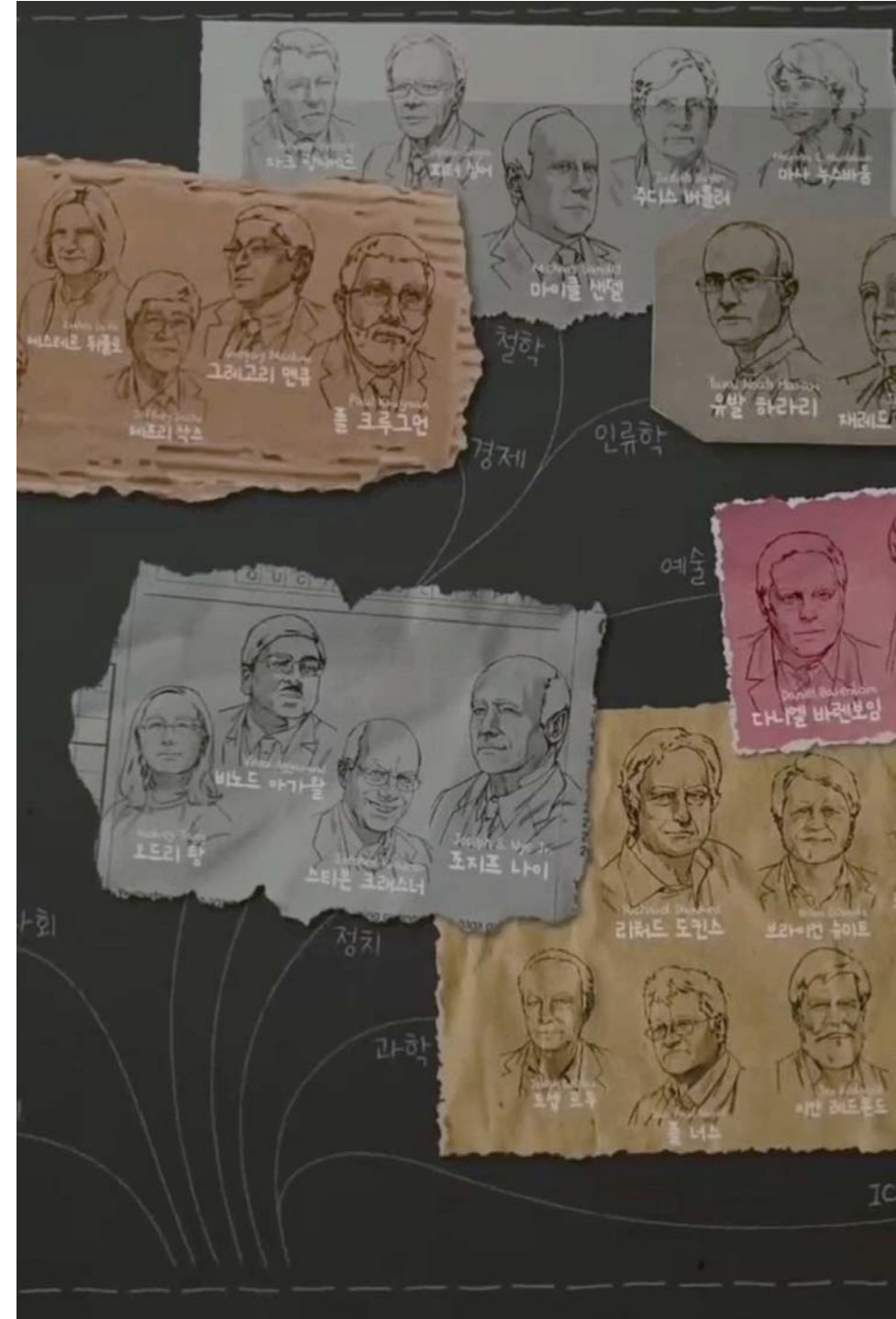
<위대한 수업>으로 본 지식의 효용과 이용자의 발견

1> 사람들은 왜 지식을 찾는가?

의심 받았지만 다시 증명된 '지식의 효용'

2> 요즘 누가 긴 강의를 보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던 '이용자'의 세계



누가 보는가?

"어렵다" vs "시시하다"





어려워요

(깊게 만들면 대중성을 잃음)



시시해요

(가볍게 만들면 기존 매체와 차별점이 없음)

어려워요. 도식화 등 신경써주세요.

“채널을 돌리다가 EBS 채널을 지나는데 리처드 도킨스 박사가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클립이 엄청 짧더라고요. 일단은 짧은데 매주 한다고 해서 더 찾아보게 됐고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니까 제가 관심이 없는 주제라도 가볍게 볼 수 있어서 그때부터 꼭 보게 된 거 같아요.” (30대, 남성, 대학 교직원)

시시해요. 책과 차별점이 없어요

“저는 책을 다 샀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이랑 리처드 도킨스 책 등을 다 샀어요. 얇은 지식은 유튜브에서 보고 깊은 지식은 책에서 담는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경로로 된 것 같아요.” (30대, 남성, 연구직)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스낵형	딥다이브형
	
- Motivation: 빠른 자극 (Rapid stimulation) - Format: 숏폼, 요약 (Short-form, viral clips) - Depth: 넓고 얕음 (Broad but shallow)	- Motivation: 지적 충족 (Intellectual fulfillment) - Format: 롱폼, 시리즈 (Long-form, structured series) - Depth: 좁고 깊음 (Niche, deep dives)

지식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유는

지식 추구형 이용자 (4유형)

여가 활용

- ✓ 요약, 정리된 영상 선호
- ✓ 짧은 시간 가볍게 시청



잡학 다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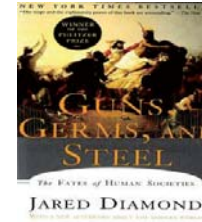
업무 활용

- ✓ 관심 분야에 한해서 깊이 있는 콘텐츠 선호



순수 지식 추구

- ✓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콘텐츠 선호



🍿 스낵형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합니다.
공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원합니다.



📖 딥다이브형

한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롱폼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지적 충족감과 실질적 인사이트를 원합니다.



정리

누가 보는지를 알아야 잘 만들 수 있다

콘텐츠의 성패는 타깃 이용자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 추구형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이용 목적이 다릅니다.
<위대한 수업>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이용자에게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AI는 답을 주는데 사람들은 왜 여전히 지식을 찾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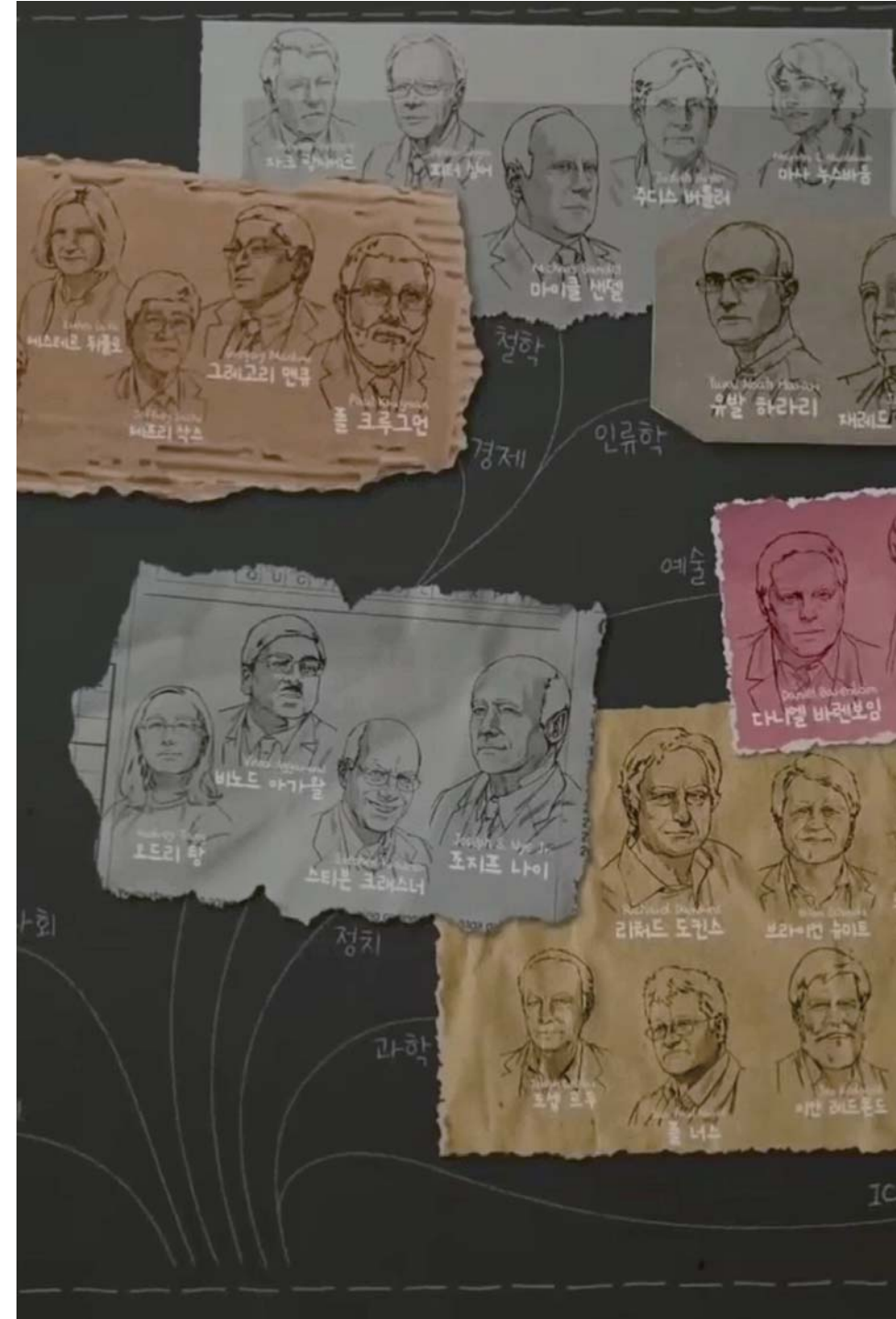
<위대한 수업>으로 본 지식의 효용과 이용자의 발견

1> 사람들은 왜 지식을 찾는가?

의심 받았지만 다시 증명된 '지식의 효용'

2> 요즘 누가 긴 강의를 보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던 '이용자'의 세계



읽는 교사를 넘어
사유하고 실천하는 교사로

경북 교원
인문 인사이트
라운드 테이블

주제강연 2

한 권의 책, 한 번의 대화, 한 사람의 변화

교원 인문 인사이트가 여는
공교육의 인문학적 성찰

- 박준형 박사



한 권의 책, 한 번의 대화, 한 사람의 변화

교원 인문 인사이트가 여는 공교육의 인문학적 성찰

박준형 연구위원 / 교육학박사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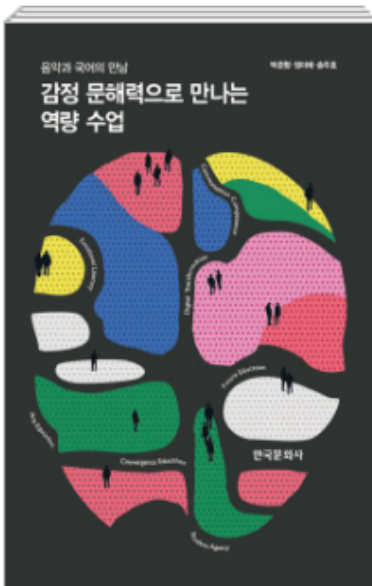


국어교육학 박사(현대문학교육전공), 중등 정교사(국어), 한국어교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전. 부산대학교 지역혁신역량교육연구센터 박사후연수연구원
- 전. 국립특수교육원 국정교과서 감수위원(5종)
- 전.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수학·정보 교과용도서(AIDT) 검정심의회 연구위원(표기·표현)
- 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계약교수(국어교육론, 국어 교재 연구 및 지도법, 문학교육론 강의)
미래교육센터, 과학교육연구소(겸무), AI 디지털 융합 교육 혁신 플랫폼 사업단(겸무), IB 글로벌교육센터(겸무) 등
- 전.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계명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등 전공/교양/교직 강의

현대시 서·논술형 평가 구조 설계
이상화 시의 리질리언스 시학
한국영화에서 표상된 시(詩)의 문화자본적 속성 연구
초등 통합교과에서의 문학의 위상 분석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
현대문학 교육에서 디지털 소양의 구현 방향
디지털 시민성의 대두와 현대시 교육 : 닐 포스트먼의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권정생 시에 나타난 장소기반 공동체와 사회자본 연구 - 안동 일직 지역성을 중심으로 -
미적 경험의 교육적 변주 - AI·디지털 융합 현대시 공간 교육 -
지역문학으로서의 현대시 공간 교수 설계 연구
중등 국어과 예비교원의 인공지능 융합 문학교육에 대한 인식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를 위한 고등학교 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제언
AI·디지털 융합 교육을 통한 현대시 공간 교육의 확장 -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관점에서 -
권정생 소년소설 몽실언니의 장소성에 기반한 연민 분석
학교 문법에서 모음 축약과 반모음화 기술의 일관성 문제
창의성 신장을 위한 AI·디지털 융합 국어교육 사례 연구 - 3D Creation & coding SW 활용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가 지역 문학을 다루는 방식 -성취기준 구현 단원을 중심으로-
TBL을 활용한 석사과정 예비 한국어교원 대상 한국문학교육론 수업 사례 연구
문학 공간 교육을 위한 3D creation & coding SW 활용의 의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대구·경북 지역 문학 수록 양상 연구
토포필리아 함양을 위한 지역 문학콘텐츠 활용 방안 - 대구, 이상화 시인을 중심으로 -
통섭형 전문인력으로서의 미래형 육군 양성 및 관리 방안
3D creation & coding SW를 활용한 현대시의 '공간' 교육 방안
문학공간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이호우 문학의 지역성 및 문학콘텐츠로의 가능성 검토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드러난 '연민' 연구 -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중심으로 -
방언의 효과를 고려한 소설교육 방안 -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중심으로 -



감정 문해력으로 만나는 역량 수업 | 음악과 국어의 만남

저자: 박준형, 정미애, 송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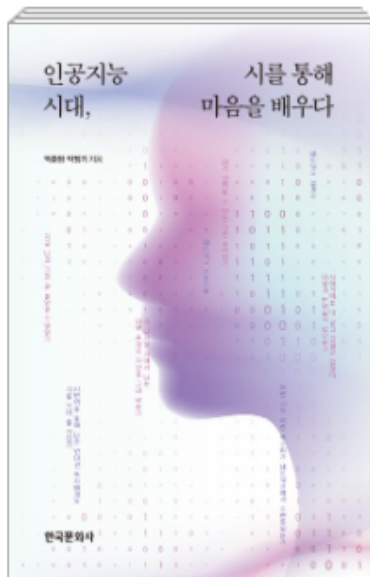
발행일: 2026년 03월 25일 출간

분류: 인문학 > 인문학일반 > 인문교양 | KDC: 사회과학(370)

정가: 16,000원

[미리보기](#)

[★관심도서 등록](#)



인공지능 시대, 시를 통해 마음을 배우다

저자: 박준형, 박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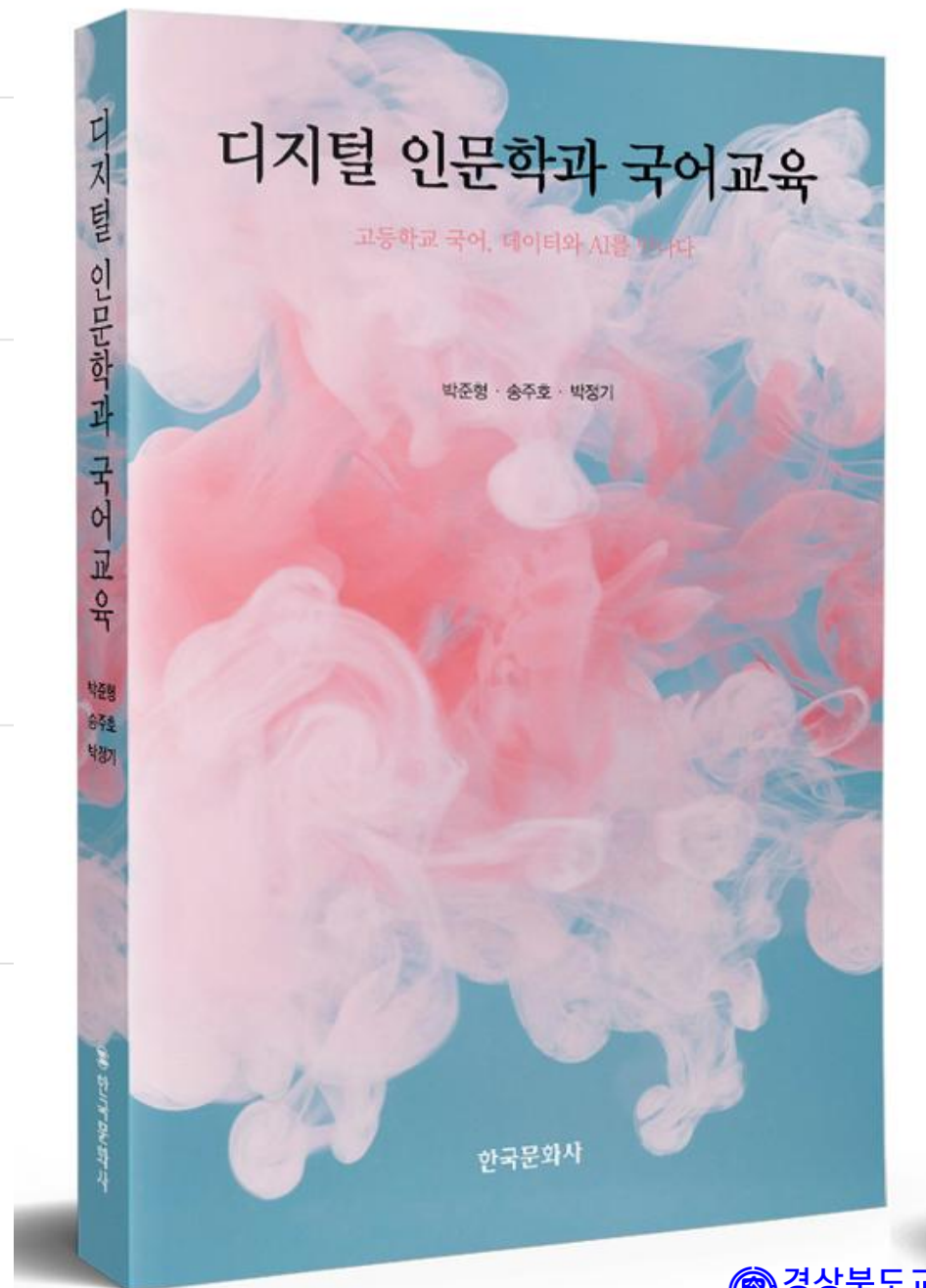
발행일: 2026년 04월 30일 출간

분류: 인문학 > 언어학 > 언어학일반 > 언어학이론 | KDC: 사회과학(370)

정가: 23,000원

[미리보기](#)

[★관심도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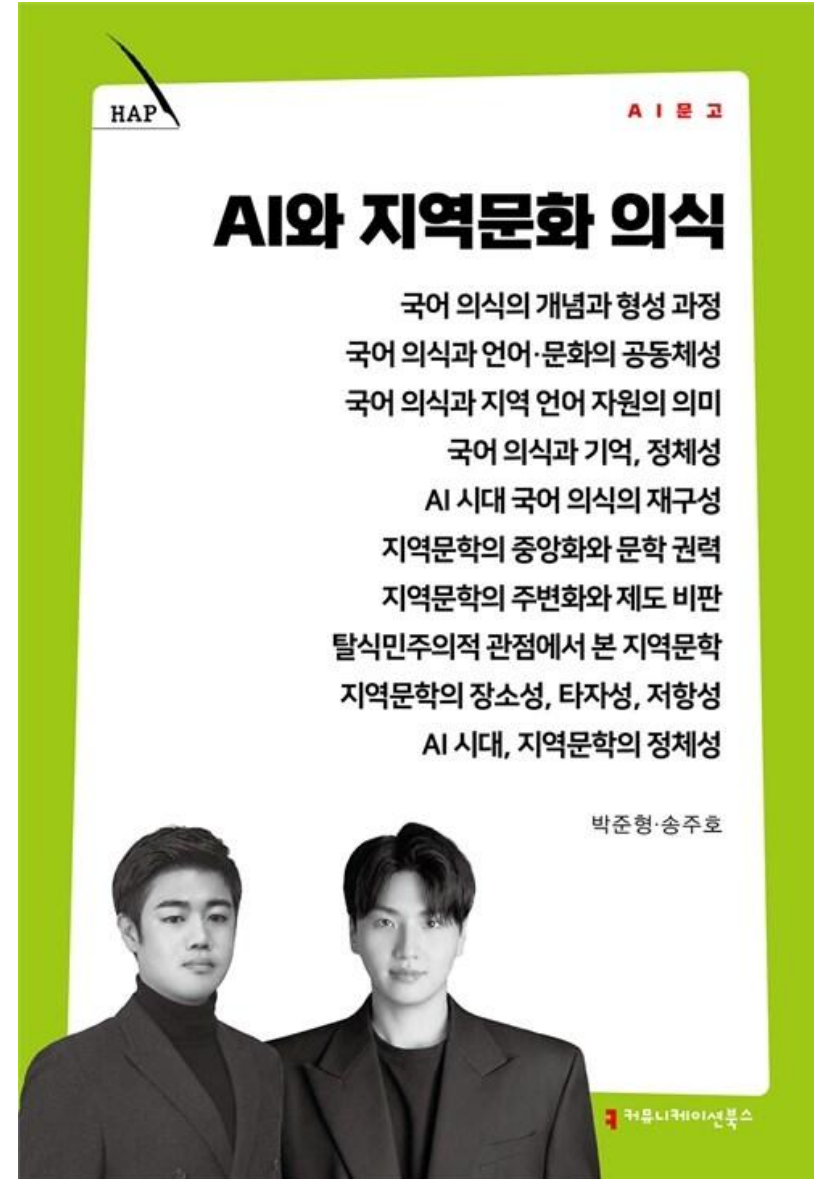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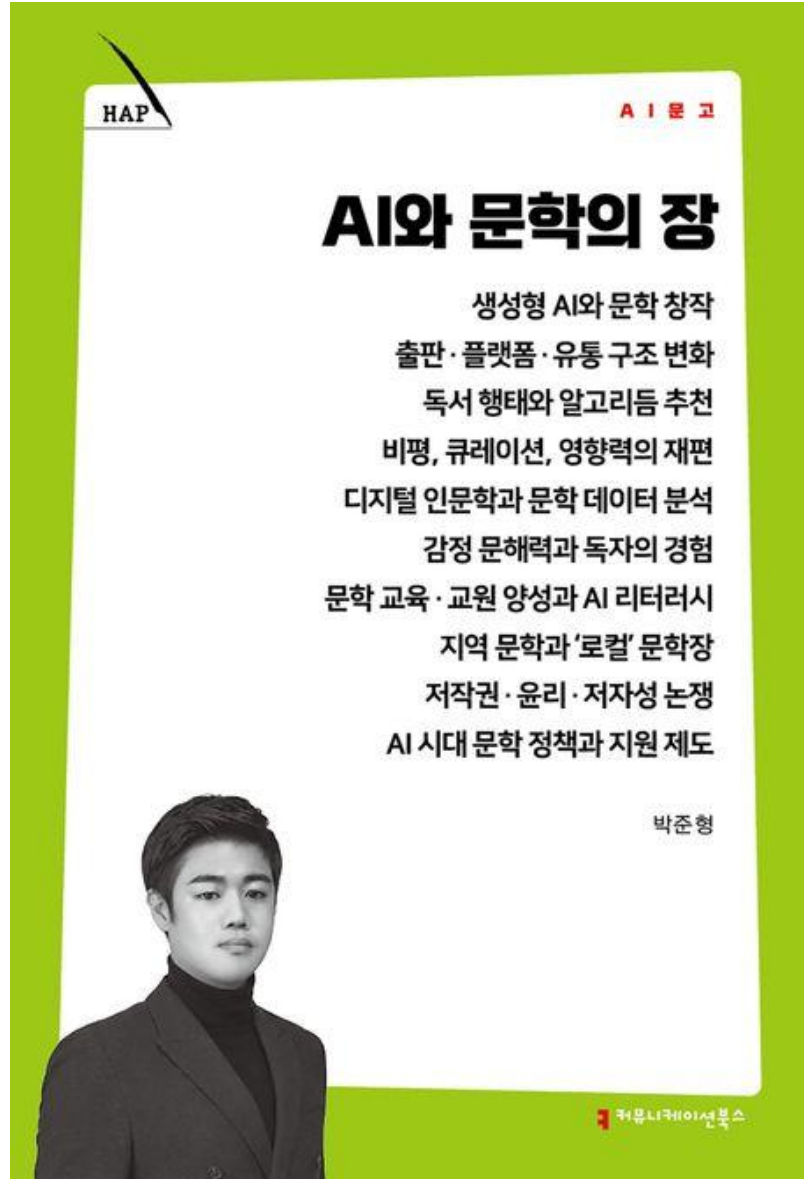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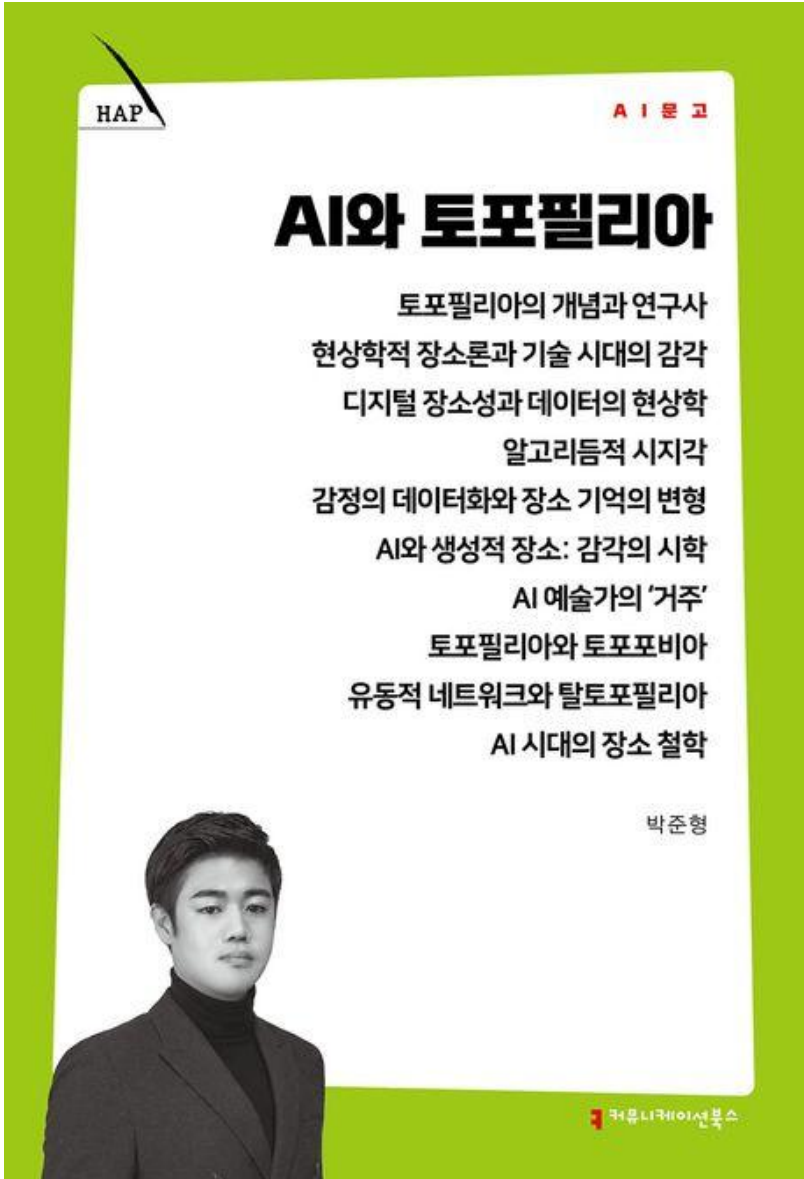


출판사
ISBN

한국문화사
9791176310123 (93370)

쪽수
크기

커뮤니케이션북스 AI 총서



순서

01. 시대의 변화 속 빅테크는 인문학을 호출하다.

기술 혁신의 내부에서 다시 묻는 인간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

02. 인문학의 장이 변화한다.

디지털인문학과 디지털인문학 교육

03. 경북교육의 혁신: 교원 인문 인사이트

공교육 기반의 디지털 라키비움 구축과 교원의 주체적 사유 실천

01. 시대의 변화 속 빅테크는 인문학을 호출한다.

기술 혁신의 내부에서 다시 묻는 인간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



인문학의 위기?



유경상 기자

입력 2025.12.01 17:26 수정 2025.12.19 17:08

지역기반 대학이면서도 애향에 무심하고, 지역인문학 경시풍토 짙어 대학교수들, 폭력적 구조개편 반대 이어 기초학문 보호 촉구 시위 잇따라

가 인문·문화학부 전공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기초학문 경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통문화 기반 'K-인문 특성화'를 앞세워 대형 국책사업까지 따낸 대학이 정작 내부에서는 인문학 전공을 구조조정의 1순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교수·학생·졸업생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대학 학과 통폐합·신설 현황 (2013-2022)

자료: 도종환 의원실(2023년)

총 학과 변화 건수: 4,108건



인문학의 위기: 폐과 > 신설



■ 학문후속세대 양성



인문사회계열

석사 지원

석사: 200명

박사 지원

박사: 400명

이공계열

석사: 2,850명

석사: 2,850명

박사: 2,281명

■ 연구소 지원 예산



인문사회 연구소



교육부 275개
1,069억 원

이공계열 연구소



교육부 166개
2,024억 원
+ 과기부 35,600억 원

■ 주요 국가 공적 R&D 인문사회 분야 비중





“Knowledge is no guarantee of good behavior, but ignorance is a virtual guarantee of bad behavior.”

(지식이 선한 행동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무지는 사실상 나쁜 행동을 보장한다.)

인문학 교육의 쇠퇴는 “useful profit makers with no imaginations”(상상력 없는 유용한 이익 창출자들)만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

인문학의 위기는 단순한 취업률 문제가 아니라 민주 시민성의 위기이다.

— MarthaC. Nussbaum,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2010)

디지털 시대, { } 인문학의 미래를 말하다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를 말하다 (2024)

한진두장암
소리하줄여
결은여라

1. 현재 상황: 인문학의 악화된 환경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환경의 심화



학과 구조조정



2. 패러다임 전환: "신한국인문학"의 필요성 대두



한국의 고유성 & 디지털 결합
새로운 가치 창출
지속 가능한 인문학 생태계 조성

단청
유물
유적
유구

3. 주요 실천 방향 및 미래 전략



한국 문화자산의
디지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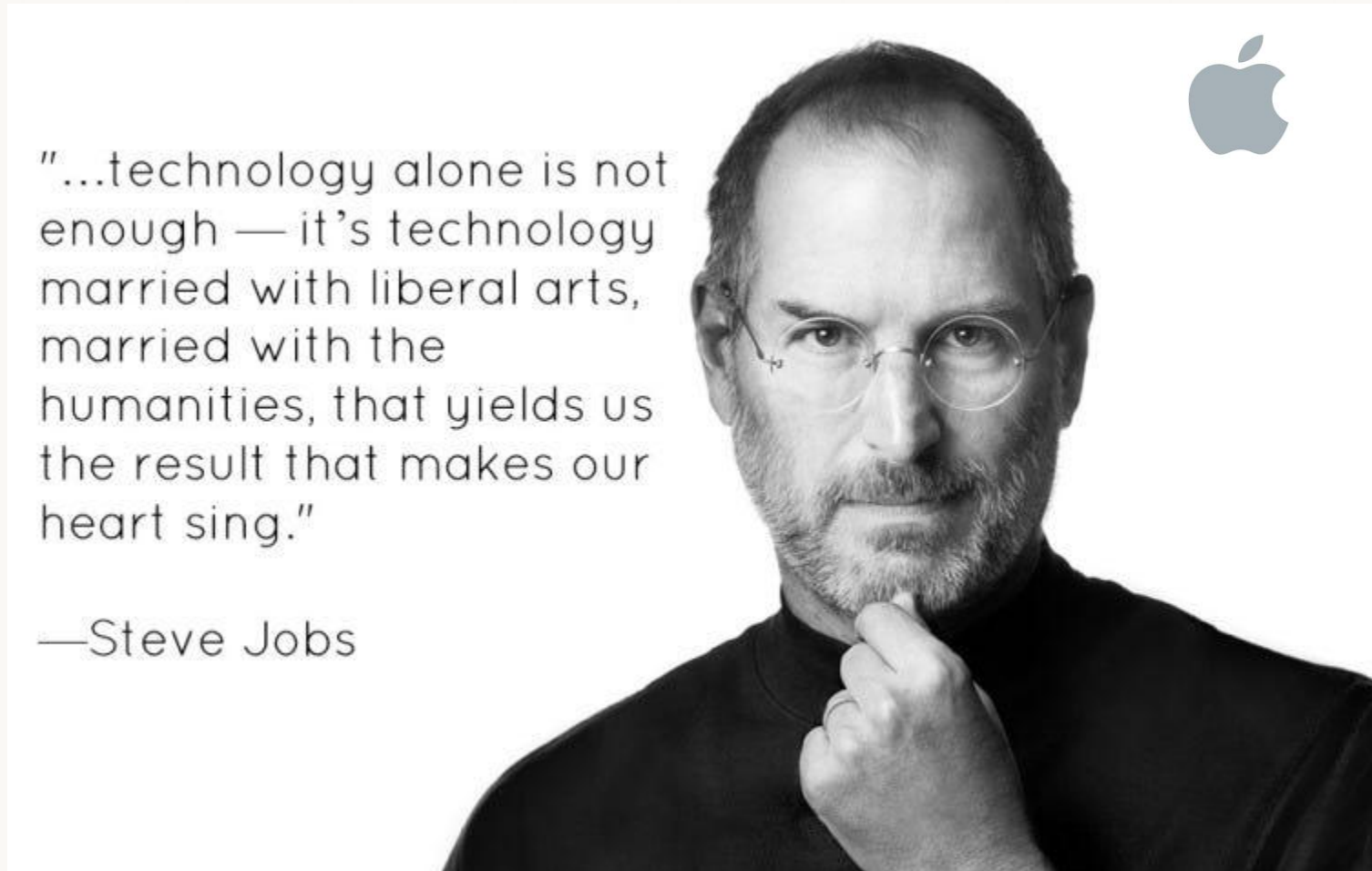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한국학
플랫폼 구축



미래 세대를 위한
신한국인문학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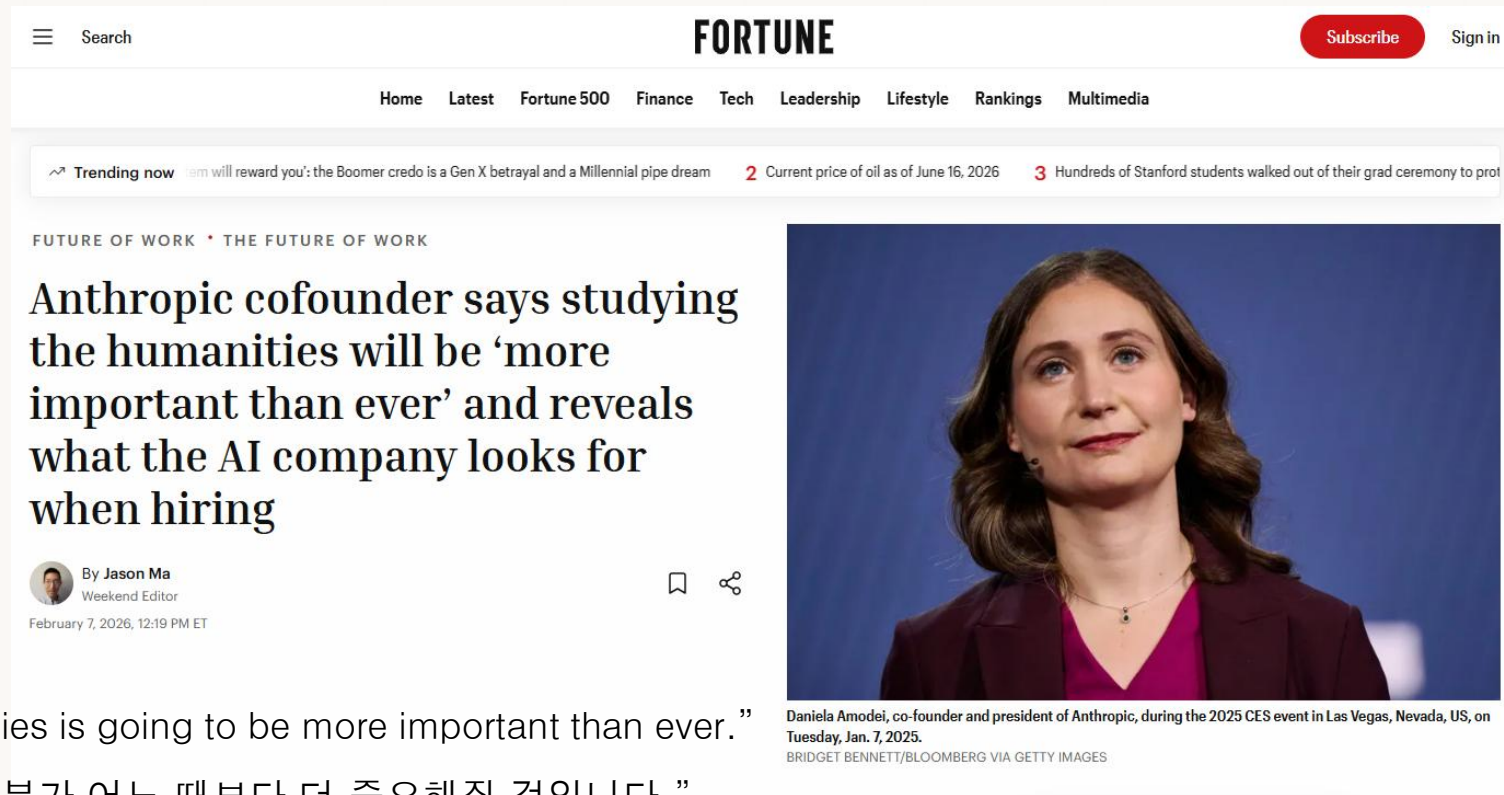
|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호출한 인문학(Humanities)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이 인문학 및 교양과 결합될 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결과가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호출한 인문학(Humanities)



“Studying the humanities is going to be more important than ever.”

“인문학 공부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AI systems are already quite good at many STEM tasks. What we will need people for is critical thinking, the ability to interact with other people, and to interpret themselves and society.”

“AI 시스템은 이미 많은 STEM(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 과제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필요로 하게 될 것은 비판적 사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과 사회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호출한 인문학(Humanities)

Article • People & Skills

Satya Nadella: Why EQ Matters More Than IQ in the Age of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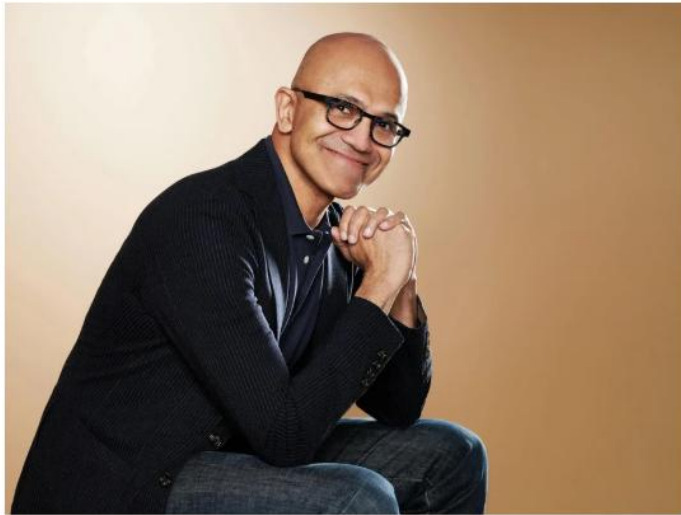
By Georgia Collins
December 04, 2025 • 4 mins

Share this article

[in](#) [X](#) [f](#) [e](#)

[Prioritise Us on Google](#)

[in](#) 팔로우 20,319



Satya Nadella, CEO at Microsoft Credit: Microsoft)

Microsoft leader Satya Nadella says as AI takes on technical tasks, emotional intelligence is the key trait that will set successful leaders apart



Company Portals

[Microsoft](#)



“As AI takes over more of the technical and analytical work, empathy and EQ will become the core skills for the future.”

“AI가 더 많은 기술적 · 분석적 업무를 맡게 될수록, 공감 능력과 감성 지수(EQ)가 미래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호출한 인문학(Humanities)

Goldman Sachs

Search FORTUNE Subscribe Sign in

Home Latest Fortune 500 Finance Tech Leadership Lifestyle Rankings Multimedia

ending now stay loyal, and the system will reward you: the Boomer credo is a Gen X betrayal and a Millennial pipe dream 3 Hundreds of Stanford students walked out of their grad ceremony to protest Google CEO's comm

FUTURE OF WORK • TECH

Jamie Dimon says soft skills lik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are vital as AI eliminates roles

By Nino Paoli
Former News Fellow
December 14, 2025, 4:02 AM ET

Bookmark Share



JPMorgan Chase CEO Jamie Dimon says AI will eliminate jobs—and that soft skills will be more important than ever.
EVA MARIE UZCATEGUI/BLOOMBERG VIA GETTY IMAGES

“My advice to people is: develop critical thinking, learn new technologies, grow your EQ, learn how to behave in meetings, how to communicate, how to write. Those soft skills will matter more in an AI world.”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EQ를 키우고, 회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소통하고 글을 써야 하는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프트 스킬이 AI 시대에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호출한 인문학(Humanities)

1. 시대적 배경: 디지털 고도화와 인문학적 역량의 강조

- 현상과 문제의식
 - 정보의 폭발적 증가(데이터 · 알고리즘 · 자동 생성 콘텐츠의 일상화)
 - 정보의 진실성 · 맥락성 · 윤리성에 대한 판별 난이도 급증
- 패러다임의 전환
 - 단순 계산 · 습득 능력 → **의미 판별, 타자 이해, 공공적 판단 능력**으로 중심 이동
 - 빅테크 경영자들의 인문학 강조는 낭만적 수사가 아닌, 기술사회 속 **실질적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혁신의 조건**으로서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호출하는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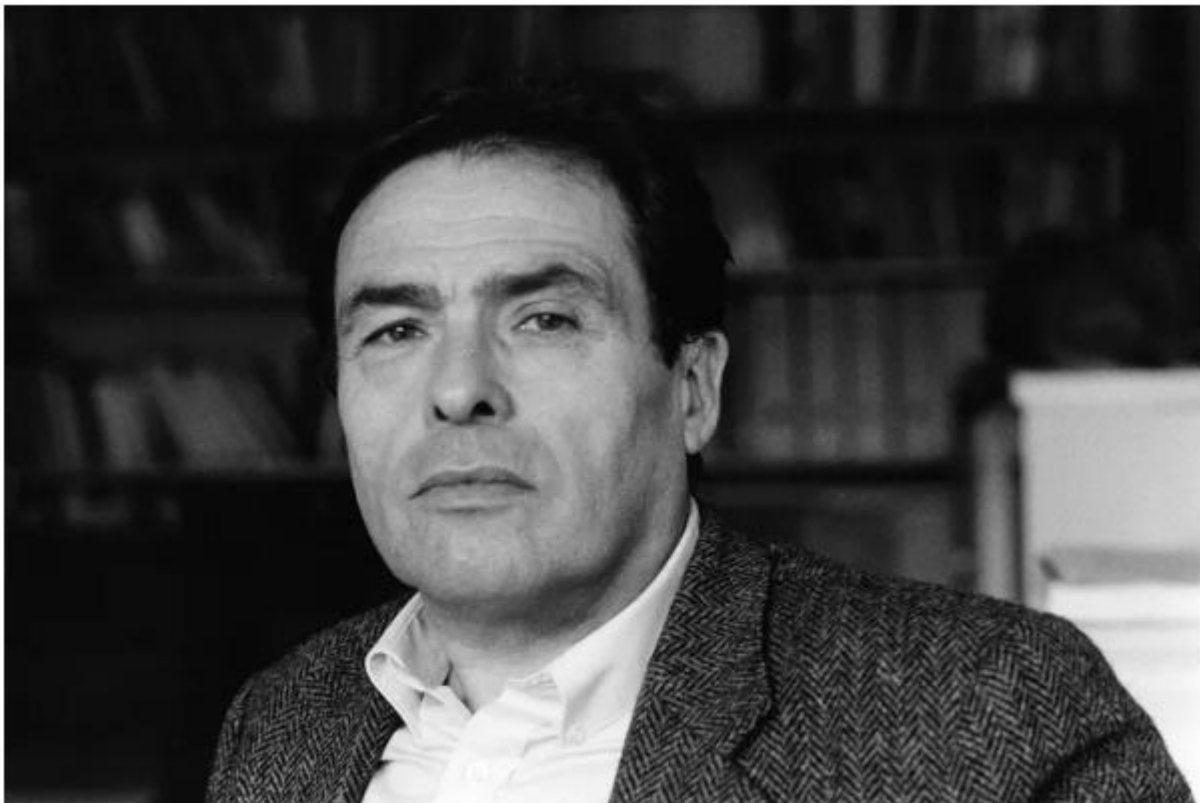
2. 교원교육의 책무: '교육적 번역가'로서의 교사

- 학교의 역할: 기술사회의 변화를 가장 먼저 교육적 가치로 번역하는 공간
- 교사의 역할: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번역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
- 교원의 인문학 역량의 재개념화
 - 고전 지식의 단순 축적이나 독서 이력의 나열(과거 회귀적 교양론)
 - 기술 환경 속에서 **인간과 교육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미래지향적 실천론)



02. 인문학의 장이 변화한다.

디지털인문학과 디지털인문학 교육



Credit: Ulf Andersen/Getty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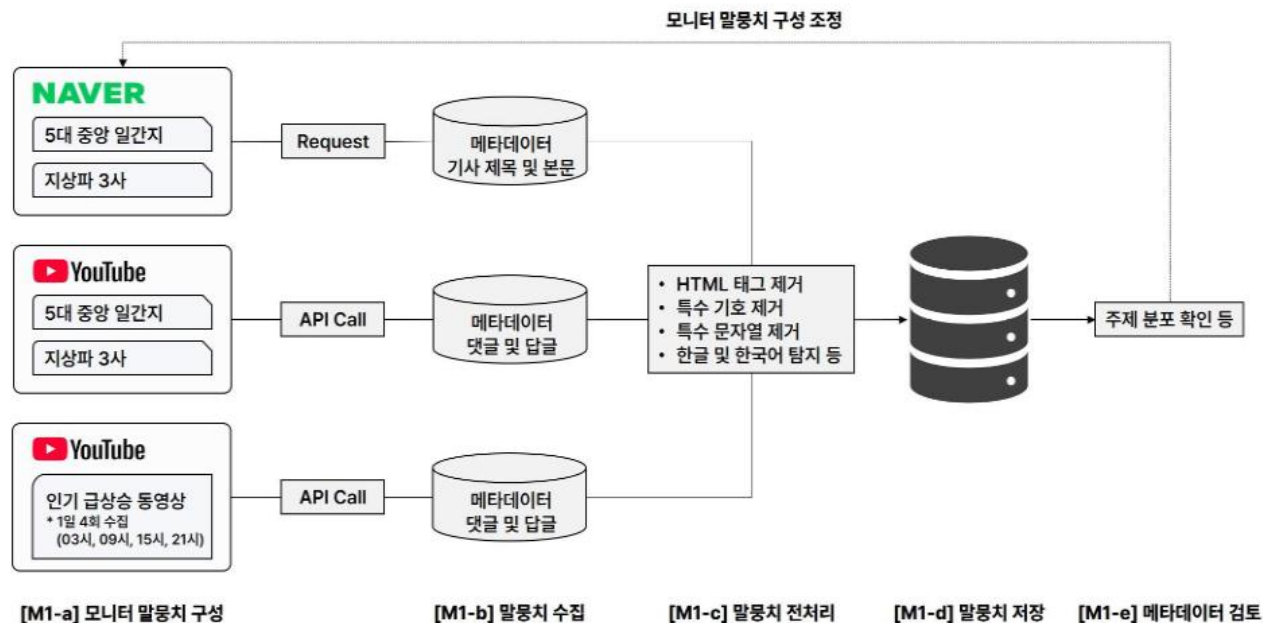
Habitus

Field

아비투스는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성향의 체계'(system of enduring disposition)로서, 행위자가 속한 특정한 사회 속에서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배적 인지도식이나 분류체계로서 '구조화된 구조' (structured structure)인 동시에 일상적인 맥락 속의 구체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인식과 분류를 유발하는 '구조화하는 구조'(structuring structure)라 할 수 있다(Bourdieu, 1990; 2000)

장은 행위자들의 실천을 유발 하는 객관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장은 개인의 주관적 의도로 환원할 수 없는 '객관적인 위치들의 관계' 혹은 '객관적인 권력관계의 망'이다. 사회공간 속에서 행위자들의 위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총량', 그리고 자신 이 속한 장에서 특화된 자본과 다른 자본들 사이의 '상대적 구성'에 의해 정해 진다(Bourdieu, 198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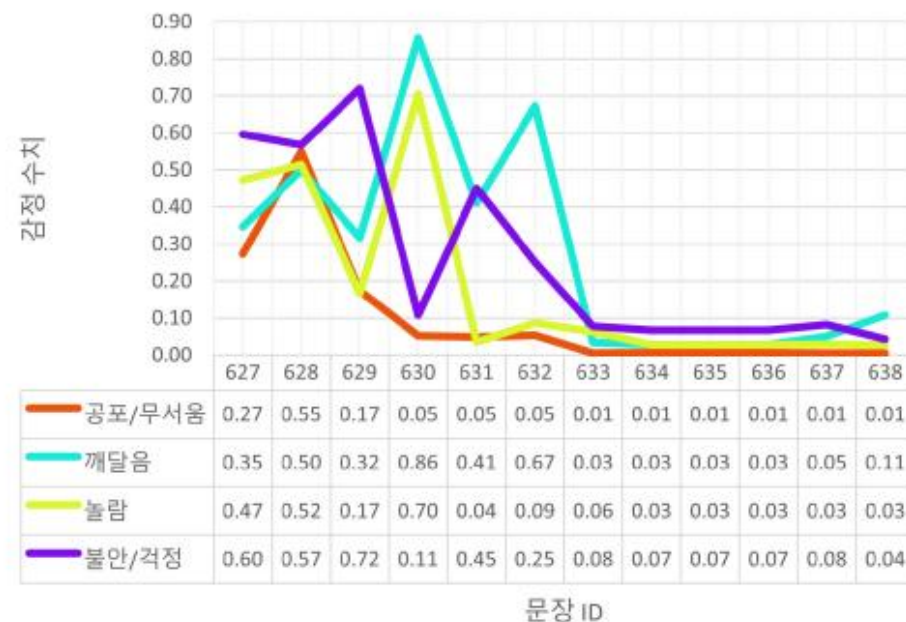
디지털인문학과 디지털인문학교육



<그림 1> 모니터 말뭉치 수집 과정

4-3-2. 「날개」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감각·감정 패턴

「날개」 역시 「집땀이轢死」와 마찬가지로 서사의 마지막 대목에서 에피파니가 관찰된다. 다섯 번째 외출(「날개」, ID:582)을 감행한 '나'는 몇 시간 후 자신이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날개」, ID:591)을 깨닫는다. ID:627 부터 나타나는 후반부의 에피파니 패턴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9> 이상, 「날개」 끝 부분에 나타난 에피파니 순간의 감정 흐름 그래프

디지털인문학과 디지털인문학교육



03. 경북교육의 혁신: 교원 인문 인사이트

공교육 기반의 디지털 라키비움 구축과 교원의 주체적 사유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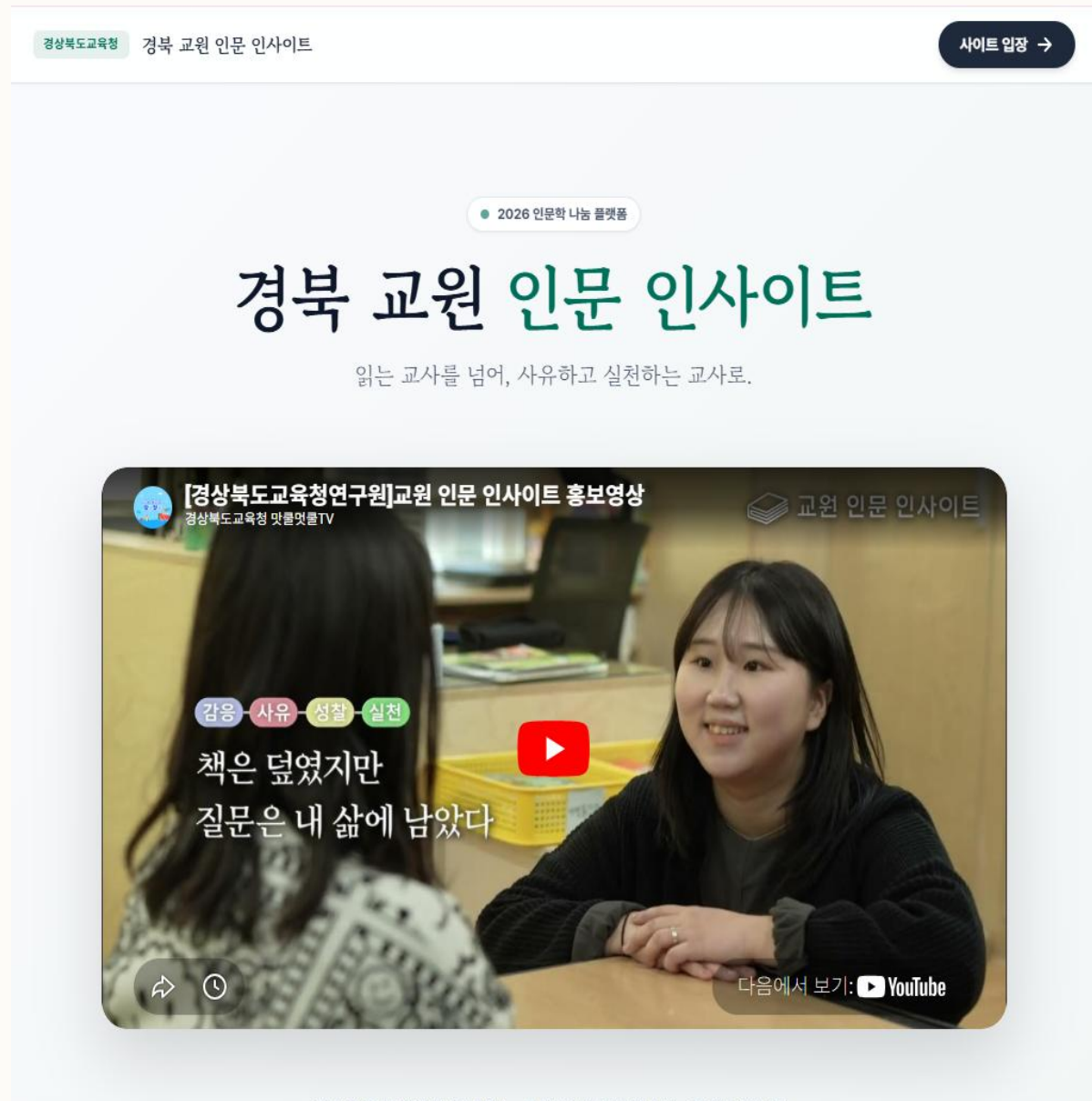
인문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교육

폐쇄성에서 열린 참여형 장으로

전통적인 인문학은 전통적인 아비투스 중심의 폐쇄적인 장에 존재해 왔음
그러나 오늘날의 인문학은 AI 디지털 대전환과
교육 현장·교육 주체의 능동적 변화 등을 토대로
유동적이며 역동적으로 재편되고 있음

경북교육청의 지향과 주체적 선언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원 인문 인사이트’는
교사들이 인문 지식을 주체적으로 생산·공유·전시하는
공교육 차원의 혁신이자 교사가 주체가 되는 인문학의 실천 모델



교원 인문 인사이트: 4단계 성장 로드맵

01. 감응 (感應)

일상에서 다가오는
'단 한 줄의 문장'을 포착하고,
디지털 기록을 통해
스스로 성찰의 계기 마련하기

02. 사유 (思惟)

내 마음에 잔잔하게 머문
질문을 바탕으로,
나의 구체적인 교실 수업 경험과
생활 교육 맥락 연결하기

03. 성찰 (省察)

권역별 소규모 공동체 연구회
및 라운드 테이블을 거치며
타인의 서사를 통한 깊이 있는
관점 확장

04. 실천 (實踐)

학교 현장에서의 가치 지형을
재구성하고, 동료와 학생 삶의
상호작용 속에 구현되는
공적 지식 자산화

| 경북 교원 인문 인사이트 L + Archiv + eum

라키비움: 2000년대 초반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정보대학원장인 Megan Winget 등에 의해 체계화된 전통적으로 지식 생태계를 삼분(三分)해 왔던 LAM(Libraries, Archives, Museums) 기구 간의 장벽을 허물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자원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함

• **도서관 (Library):**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인쇄 매체 중심의 고도로 분류된 정보의 '제공 및 대출' 기능

• **기록관 (Archives):** 조직이나 개인이 생산한 일차 사료 (Primary Sources)의 '보존 및 증거적 가치' 입증 기능

• **박물관 (Museum):**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물(Artifacts)의 '전시 및 시각적 재현' 기능

나의 기록

인사이트 쓰기

나의 인사이트 보기

나의 인사이트 0

소모임

활동중: 1기

개설 신청하기

소모임 입장

선택된 활동중 소모임 (1기)

미트북러버

Deep_기쁜 리딩방

책읽자모디라

여운의 책방

이달의 추천 도서

저러는 세계 김소영

스토너 존 월리엄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이매인

이달의 인문로거

책소금레시피

책파카

유엔미블루

Gnana

윤유라

인문라운지

날

날나라 선생님 모서초등학교

노력은 어떻게 삶의 힘이 되는가 (본노, 슬픔, 두려움, 기쁨, 수치...

인문

책

채쌤님 선생님 개전초등학교

안나 카레나 2

문학

소모임 글 모음

1기 ▼

아침책방

2026.06.23 제출



▣ 남한산성 (김훈 정현소설)
김훈

▣ 나눔 문장 1

"p76 임금은 오래 울었고 깊이 젖었다. 마루 위에서, 성안 앞에 앉은 젊은 사관이 벼루에 먹을 갈며 마당에 쓰러져 우는 임금을 잔잔히 ..."

▣ 나눔 문장 2

"p94 말들의 죽음은 느리고 고요했다."

📖 사유의 확장

1. 역사의 굴레와 지금의 우리 '남한산성'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2026년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임금이 갇혔던 남한산성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

인상맛 인문학

2026.05.19 제출



▣ 악마와 함께 춤을
크리스타 K. 토마스

▣ 나눔 문장 1

"나쁜 감정은 좋은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 ... 즉 당신이 자신의 삶에 예측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 나눔 문장 2

"삶은 복잡하다. 삶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고 충격적이며 압도적이다."

📖 사유의 확장

[악마와 함께 춤을] 도서를 읽으며, 불안, 슬픔,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삶을 망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삶에 예측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깨달았다. 또한 삶은 늘 ...

사색(四色)의 어원: "사·서·음·악·상·담·천·기·전자의 사(四)색 천공자가 모여, 『여름이 사전』 속 단어들을 네 가지 시선으로 사색(思索)하고 공유하는 인문학 소모

나침반

2026.06.14 제출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진정한 가르침을 발견하는 교사의 내면 풍경 탐색하기)
파커 J. 파머

▣ 나눔 문장 1

"좋은 교육은 테크닉으로 격하될 수 없다. 좋은 교육은 교사의 정체성과 진실성에서 나온다."

▣ 나눔 문장 2

"우리가 교실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고 입을 다무는 쪽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사회적 약자..."

📖 사유의 확장

파커 J. 파머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함께 읽으며, 각기 다른 경력과 위치에 서 있는 우리는 각자의 솔직한 고민과 생각을 나누었다. 같은 텍스트를 마주하고도 삶의 궤적에 따라 이토록 다채로운 ...

건강다독이

2026.05.19 제출



▣ 넥스트 씽
셸 비머터, 존 험벌, 로버트 해먼

▣ 나눔 문장 1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결정한다.(29쪽)"

▣ 나눔 문장 2

"자신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67쪽)"

📖 사유의 확장

AI가 생산하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까?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사회적 쟁점 앞에서 개인은 어떤 근거로 입장을 정하고 ...

오독오독

2026.06.16 제출

인문라운지

1 / 22 페이지

전체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학 역사 교육 기타

날



날나라 선생님

모서초등학교

▣ 느낌은 어떻게 삶의 힘이 되는가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 수치...

"거친 생각은 없지만 미세한 자각은 남아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 수 있기를!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저 평상심으로 바라 볼수 있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인문 ▼

채



채쌤님 선생님

개진초등학교

▣ 언나 카레니나 2

"일관성 있는 모습은 보기에 나쁘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은 보기에다 나쁜 것이다."

문학 ▼

동



동네 바이브 선생님

영덕중학교

▣ 착한 행동 나쁜 행동 (헌법, 질병, 노화를 적우하는 우리 몸의 조...

"해법은 일반적인 역제가 아닌, 균형과 조율이다."

과학 ▼

환



윤유라 선생님

경북체육고등학교

▣ 철수 (배수아 소설)

"멋진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선 내면을 응시하기"

문학 ▼

날



날나라 선생님

모서초등학교

▣ 느낌은 어떻게 삶의 힘이 되는가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 수치...

"느낌과 친구가 되어 어떤 느낌도 자연스럽게 흘러 보낼 수 있기를 그리 하여 오로지 평등함에 머무를수있기를 !"

인문 ▼

채



채쌤님 선생님

개진초등학교

▣ 언나 카레니나 2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도파민 보다는 세로토닌을 추구하자."

문학 ▼

고



고은바람 선생님

선주초등학교

▣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우리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에 충실하기"

문학 ▼

유



유엔미블루 선생님

선산초등학교

▣ 시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

"나는 어떤 질서에 속해 있을까?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역사 ▼

채



채쌤님 선생님

개진초등학교

▣ 언나 카레니나 2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을 위해 내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 살아야겠다."

문학 ▼

깨



깨소금레시피 선생님

영동초등학교

▣ 잘리리, 기도하는 그 손을 (책과 혁명에 관한 다섯 밤의 기록)

"야자의 눈물로 구원을 받지 않겠다. 오직 온 마음을 다해 읽고 주체적으로 써 내려가는 나의 성실한 문장들로, 너라는 세계의 파업을 완성하고 싶다."

인문 ▼

깨



깨소금레시피 선생님

영동초등학교

"생성이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택한 길을 묵묵히 걷는

인문 ▼

교원 인문 인사이트의 3대 핵심 가치

수혜자에서 주체적 행위자로

교사는 단순히 인문학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서평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인문학 장의 규칙을 재구성하는 핵심 행위자(Agent)로 기능함

학교 현장의 실천적 중심화

대학과 산업계 중심의 엘리트 인문학에서 벗어나,
가장 인간다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하는 일상의 학교 현장을 실천적 인문학 생산의 본령으로 함

현장밀착형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문학이 대학 및 연구소의 현학적 분석에 갇히지 않고,
교사들의 디지털 글쓰기와 플랫폼 연대를 통해 역동적으로 재창출됨

Q&A

인간 중심의 사유를 여는 경북 교육, 그 아름다운 연대와 연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경북교육 정책·연구 이슈페이퍼 제2026-04호**”로 원고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박준형**

054-840-2268

parkjh954@gyo6.net

gbe.kr/gber/na/ntt/selectNttList.do?mi=23552&bbsId=6618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처음으로 | 로그인

화면크기조절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교육과정

교수학습지원

진로진학

정책연구

열린행정

정보공개

우리원안내



교육과정

+

교육정보

+

진로교육지원센터

+

정책연구보고서

교육행정서비스현장

+

정보공개

+

열린원장실

+

교육평가

+

화상영어

경북진학지원센터

**경북교육 정책·연구
이슈페이퍼**

입찰정보

전자민원창구

+

데이터개방

연혁

+

연구학교

경북교육자료관

사이버진로상담

정책연구제안방

공지사항

사전공표정보

+

기관 CI

연구원개발자료

정책연구용역목록

보도자료

+

재정공개

+

연구원동영상

경북국제교육포럼

간행물발간번호등록

+

조직 및 전화번호

+

국외교육동향

국내교육동향

메일링서비스신청

인성인문학교육지원

센터

포토갤러리

오시는길

+

시설대관안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